1. 어떤 이유로 개발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 이유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부하게된 계기, 개발을 향한 열정과 도전하고 싶은 분야 등을 알려주세요. (500자)

대학교 1~2학년을 학교 소속 봉사동아리에 바쳤습니다. 특히 열심히 했던 활동은 교육봉사였는데, 학생과 학교 모두 코딩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교육봉사 프로그램 총책이 된 이후로 이런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 가능 인력을 모집하고, 스스로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을 만들어가면서 코딩에 흥미가 생긴 것이 계기입니다.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코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조사했습니다. 개발이 세상에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나에게 좋은 진로가 될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자 결정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개발의 여러 갈래를 알게 되었고 그 중, 바로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고-무엇보다도 유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프론트 툴만 다룰 수 있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모델과 단계에 참여하여 세상에 유용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2.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기 위해 참여했던 교육 (전공 제외)이나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경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작는해주셔도 좋습니다. (300자)

코딩 교육 봉사를 위해 공부했던 것은 스크래치와 파이썬이었습니다. 예제들을 풀면서 코드를 짜는 것이 재미는 있었지만, 코드의 결과가 그저 편집기 위에 나타나는 데에 그쳤기에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이후 배포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보고자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코딩 학회에 지원했고, 웹 개발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클론 코딩을 통해 Html, css 기초를 배웠고, 장고 프레임워크의 MTV 모델, 깃헙을 이용한 협업 방법, 헤로쿠로 배포하는 방법 등을 학습했습니다. 특히 해커톤을 통해 한정된 시간 동안 구상했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집중해서 코드를 짜는 동안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됨을 느꼈습니다.

 ————————

3. 부스트캠프는 챌린지부터 멤버십까지 5개월 이상을 온라인 환경에서 몰입하여 풀타임으로 학습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자기 주도적이며, 동료와의 많은 소통을 해야 하기에 성실한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부캠에서 학습하고 싶은지, 본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저는 부스트캠프 활동을 통해 ‘함께 일 하고 싶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개발자가 되고자 열심히 개발 공부하고 있지만, 내심 비전공자임이 핸디캡으로 느껴져서 많이 초조해했습니다. 더 많고 화려한 기능을 구현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구글링한 코드를 베껴쓰고,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짜인 코드는 두 번 다시 체크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쓴 코드에 대한 이해없이 ‘돌아가면 된다’는 식의 자세는 얼마지나지 않아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해커톤에서 첫 팀 협업을 하면서 누군가 내 코드를 보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스트캠프에서 추구하는 과정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자' 교육 커리큘럼이 저의 변화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툴 사용 능력이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약 5개월 후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사람이 되어, ‘함께 일 하고 싶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4. 무언가에 깊이 빠지거나 파고들어본 적이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주변에서 인정할 정도로 깊이 있게 몰입한 경험을 소개해주세요. 무슨 노력을 기울였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세요. 기타 증빙자료 첨부해도 됨.

중학교 때 우연한 기회로 특집 신문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내고 싶은 마음에 중앙일보 편집부에 견학 요청을 넣고 다녀와서 실제 신문사는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혼자서 24p짜리 베를리너판 신문 3부를 편집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실제 종이신문으로 인쇄되어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너무 짜릿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학보사, 봉사동아리 책자 제작, 학교 과제, 학생회 자료 제작 등 뭐든 편집 관련 기회가 있다 싶으면 일단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잠을 자지 못해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점점 소문이 나서 대학에 와서는 과에서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작은 사업체들의 회사소개서나 지명원 등을 만들어주는 외주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 싶을 정도라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지금도 내용물을 배열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 희열을 느낍니다. 통일성이나 가독성이 높은 상태를 좋아해서 길을 걸어가면서 간판에 쓰인 폰트는 무엇인지, 배열은 어떤지 읊으며 다니는 저를 친구들은 변태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이러한 진득하고 다소 변태적인 집착은 분명 제가 공부하려는 분야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